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6년도 표어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신년감사메시지

미래에 대한 도전



이종윤 목사(서울교회담임)

인류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특히 연초가 되면 개인이든 단체이든 심지어 국가까지도 미래에 대한 염려와 관심을 표출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역사 변동의 가속화로 칼 브레이드가 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래 예측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인류문명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해석한 미래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그의 물결 이론에서 정보와 지식의 시대를 말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빌 게이츠는 ‘로봇 시대’를 예견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의 미래가상 시나리오는 우리를 놀라게 한다. 혁신적인 문화사가로 알려진 모리스 버먼(Morris Berman)은 미국 문화의 황혼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그는 흥망성쇠의 반복원칙에 적용하여 그것을 역사의 필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사회를 로마제국의 말기와 비교하여 해석함으로써 그의 해석의 기준이 보편성을 잃고 있다고 본다. 그는 현대 문명에 피해를 주는 자본주의적 소비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디컨스트럭션, 대중매체, 개성과 정체성의 실종 등 정곡을 찌르고 있지만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계몽주의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시계를 뒤로 돌리는 잘못된 시대 해석이라 해야 할 것이다.

현대인은 그의 미래 운명이 세계 안에서만 보고 있다. 씨이저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면 잘못을 저질러도 상관없다. 그 고귀한 목적은 잘못된 일에도 영광을 돌려주리니’라는 유리피데스(Euripides)의 시구를 즐겨 인용하였다. 반면에 철학자요 플라톤 학자인 브루터스는 지고한 이상 즉 자유와 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씨이저와 싸웠다. 불행하게도 씨이저의 승리로 끝남으로 씨이저는 땅 위의 신으로 찬양을 받았지만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에 그가 줄 수 있었던 것은 자유에 대한 조롱이요 무덤의 평화만을 제공하는 제국의 독재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결국 그 로마제국은 비통하게 멸망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그들은 낡은 세계의 폐허로부터 참된 평화, 높은 공의, 진정한 자유를 줄 분은 씨이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역사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며 중심이요 의미이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 여명기에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배워야 한다. 세상의 빛으로 오시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역사만이 은혜와 복이 됨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기원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사 이종윤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CH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U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U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지난 한 해

이규정 목사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큰 은혜로 달려온 한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동역하도록 세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깨끗한 사랑으로 섬기시는 12교구의 착한 일꾼들과 가족들, 그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안드레와 루디아선교회원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비겨주 전문인 선교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오신 충성스런 선교위원, 기도원들, 늘 기쁨 충만한 유치부교사들, 아름다운 신혼가정부 교사와 가정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윤영국 목사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올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며, 한없는 은혜로 채우신 복된 한 해였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은 서울교회 한 가족 모두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함께 있어 행복했고,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 믿는 맛을 알고, 멋지게 사는 13,14교구,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중등부와 목회자세미나 등, 한 지체 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상은 목사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도님들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한 저를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로 이끌어주셨고, 교구와 부서의 성도님들은 ‘교역자의 길에 참으로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깨닫고 맛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새해에 같은 교구와 부서의 성도님들을 섬기게 된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나님

의 종으로서 부족한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방 때마다 정성껏 맞아주시고 모든 일에 배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11,12교구 성도님들, 헌신적으로 교구를 섬기며 많은 도움을 주셨던 교구장, 간사님들을 비롯한 교구일꾼들께 무엇이든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해진 내용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셨던 소요리문답부 성도님과 교사님들, 온갖 곳은일들까지 기쁨으로 담당해 주신 주부대학과 비전2020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어리고 경험도 적은 교역자지만 늘 초청하시고 배려해 주신 스테반회, 엘리야선교회,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에스더전도회의 모든 분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한분 한분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개인적으로는 미숙했지만 한 해를 따뜻하게 마감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새해에 더욱 크신 은혜로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서명철 목사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9, 10교구의 모든 일꾼들과 다락방 식구들, 전도위원회 위원들과 남선교회, 여전도회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 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식당관리부, 차량관리부의 모든 부원들, 대학부의 교사들과 모든 젊은이들, 어린이수요예배를 섬기는 교사들과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살롱경로대학의 모든 교사들과 어르신들이 믿음으로 한 해를 달려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수길 목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서울교회로 불러주시고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며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에게는 서울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 믿음의 거룩하신 이종운 위임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과, 헌신적인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며 은혜를 함께 한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벅찬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인정 넘치는 5, 6교구 식구들, 헌신적인 모세, 한나전도회, 미래의 소망인 고등부 학생들과 사랑 많은 교사 선생님들, 교회사랑의 마음이 온 몸으로 느껴지는 교구 간사님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순례자와 멀티미디어단 식구들,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들로 뭉친 금요철야부의 일꾼들, 겸손하고 성실하신 동역자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아름다운 성도님들.....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장석남 목사

복음주의계의 영적 거목이신 이종운 목사님을 모시고 신학과 목회의 융합 현장인 서울교회에서 일할 수 일투족을 익히며 전수받으며 사역하는 것이 기쁘고 영광입니다. 또한 영혼구원의 열정으로 삶을 온

“최고로 행복한 사역의 한해”

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70인 전도대원들, 교회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있지만 열심은 그 누구보다 특이하신 교구의 가족들, 청년부의 귀한 동역자들, 초등부의 다재다능한 선생님들, 영어예배부의 헌신적인 사역자들... 저는 이분들과 더불어 최고로 행복한 사역의 한해를 보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더불어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고,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지혜영 전도사

15년을 한 걸 같이 무릎으로 교회를 지켜 오신 살롱권사님들께 건강하신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목회자세미나 기간동안 400명이 훨씬 넘는 목사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들을 땀과 미소를 담아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신 권사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교회 문을 두드리는 새 얼굴들을 가슴에 품고 견고한 더 위에 세워 주신 교사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임규현 목사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음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에바다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이종운 목사님과 은 성도 여러

“더욱 성장하는 에바다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많이 부족했지만 새해에는 더욱 성장하는 에바다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목사

제게는 참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높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으시던 용기와 헌신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구 다락방을 위해 봉사하신 모든 분들,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신 교사 선생님들, 전도회와 선교회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던 권사님들, 세계는 너무나 소중한 그림으로..”

성도님들, 그리고 늘 저를 볼 때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던 많은 권사님들... 세계는 너무나 소중한 그림으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주원순 선생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부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신 주님 뒤를 따르는 사랑과 기도의 교사들과 함께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열복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이려는 듯 투명하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사랑부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오늘도 사랑하며 살았어요”라고 주님께 고요히 고하는 하루하루가 쌓여지기를 소원합니다.

2006년 서울교

1. 주기도, 사도신경 재번역안 채택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9월 19일 제 91회 총회에서 주기도와 사도신경 재번역안을 재석 959명 중 찬성 687표로 전격 통과시켰다. 우리 교회 이종운 목사의 제안으로 서울교회 당회가 서울강남노회를 거쳐 87회 총회(2002.9)에 현의 한 후만 4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주기도문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37년부터, 사도신경은 지난 1908년부터 백년 가까이 사용해 온 것으로 이들을 재번역해 바꾼 것은 한국 기독교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번역 주기도와 사도신경은 지난 2002년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인 한기총과 KNCC가 교파를 초월해 30개 교단 62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재번역위원회를 발족하고 여기에 이종운 목사님이 재번역 위원장을 맡아 1년간 연구 작업을 벌인 끝에 나온 것이다.

앞으로 새번역 주기도와 사도신경은 대한성서공회와 한국찬송가 공회에서 수정하도록 총회가 허락함에 따라 교계에 신속히 확대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필그림 비전 투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창립 이래 최초로 대규모 성지순례단인 "필그림 비전투어 팀"을 결성해 지난 10월 30일부터 12박 13일간의 일정으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CBS기독교방송이 주관한 이 행사는 모두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는 90명이 동참했다. 투어팀은 이스라엘과 아집트, 터키, 그리스 등 4개국을 돌며 시나이산과 감람산, 켈세미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 베테스다 연못, 골고다 언덕 등 수많은 성지를 답사했고 여행지마다 깊이 있는 신학적 배경을 담은 이종운 목사의 설교 말씀과 해설을 들으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다. CBS는 투



어릴의 갈릴리 촛불예배와 선상예배 실황을 녹화해 두차례 방송을 했다.

3. 교회종탑 건립

교회는 예배당 건물 외관에 입금 촛대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옥상에 대형 십자가 종탑을 건립하고 지난 3월 5일 오전 8시 반에 초종을 울렸다.

종탑 높이는 28미터(지상으로부터 높이 74.2미터), 네온으로 장식돼 있으며, 사방에 각각 소형의 종과 중간에 큰 종을 달고 차입을 설치하여 울림효과를 냈다. 종탑 건립 헌금은 한 성도의 가정에서 이름 없이 바쳤다.



5. 북한 구원운동 세계 기도일선포

교회는 먼저, 지난 3월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형 애드벌룬에 복음이 담긴 전단을 넣어 북한을 향해 날리는 '애드벌룬 전도활동'을 하는 단체인 '북한구원운동' 대표회장 이종운 목사, 상임회장 김상철 장로를 지원하면서 북한 전도의 기회를 마련했다.

4월 우리교회 디아스포라부도 강원도 철원 등에서 이 활동에 동참했다. 또 2월 28일 북한 주민의 탈북자를 위한 서울통곡기도대회와 6월 19일 북한 백성 구원을 위한 목회자 구국기도회를 열어 3,000여명의 목회자를 우리 교회로 초청해 집회를 가지게 하는 등 북한 주민과 탈북자를 위한 기도회를 잇달아 열었다.

이를 계기로 수잔 솔티 North Korea Freedom for 참여했고, 탈북자 출신 감독들의 자전적 작품 "요리아"를

5월에는 아시아 모란대회에서 주제 강연을 한 이종운 목사도 하도록 건의함에 따라 이 대회에서 6월 25일이 북한 구원운동이 비약적으로 확산됐다. 또한 북한을 자양성하는 일(디아스포라 영어교실도 착수했다.

6. 해외파송 선교사 증성한 열매

파송한 선교사들이 각 선교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은혜로운 보고가 교회로 돌아왔다. 우선 방글라데시 '이라는 젊은이들을 위한 영혼의 휴식처가 개원됐고, 그 지역에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단기선교팀의 도움이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건축됐다. 또 캄보디아에 참석한 김치 동문들이 6월 17일을 '캄보디아 (Cambodia KIMCHI Fellowship Day)'로 정하고 이교 목군본부 연병장에서 친목을 다지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파송된 선교사들은 14차 김치신학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초청 인솔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을 매를 맺게 한 한해였다.

10대 NEWS

4. 호산나학교 개교

장애인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방과후 학교. 전문
 등 총 3과정을 운영하는 '호산나학교'가 3월 2일
 교해 첫 학기 62명의 입학생을 받았다. 서울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인 이 사업은 지난 1월 6일 호산
 복지재단 첫 이사회를 열면서 본격화했으며, 이 때
 이사장에 이종윤 목사, 서기 임상현 장로, 감사
 정수, 노송성 장로가 임명돼 본격적인 장애인 교육
 운영을 시작했다.

7. 열린 도서관 개설

성도와 이웃주민을 향해 열린교
 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는 지역 학
 생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
 부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26일 교회
 1층 102호실에 열린도서관을 개설
 하고 무료 운영에 들어갔다. 교양도
 서와 신앙서적을 기증받아 비치하고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주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
 까지 운영한다. 열린 도서관은 특히 지난 여름철에 연일 학생들로 북비는 등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8. 음악감독직제 회복

당회는 그동안 잠재해왔던 음악감독직제를 다시 회복하고 문화의 기독교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2월 10일 이영조 집사를 음악감독으로 임명했다. 또한 지휘자 순환제에 따라 주일예배 찬양대 지휘자가 모두 바
 뒀었다.

9. '서울교회 교계 모범 표창'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올해 9월 제91회 총회에서 우리 교회를 '미자립교회 돕기 모범교회'로 선정, 표창했
 다. 또 전도학교 수료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2007년도에는 전도모텔 교회로도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이 총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전시작전통제권, 북한인권문제, 도덕성문제, 이웃국가들의 역사왜곡에 대
 한 교계의 입장을 담은 총회 시국성명서를 채택했는데, 여기에 기초위원으로 활동한 이종윤 목사가 선언문
 을 총회에서 낭독해 큰 박수를 받는 등 올해 총회는 "서울교회를 위한 총회"였다는 평가를 들었다.

10. 민족과 세계를 여는 교회로서 자리매김

올 한 해 교회는 많은 기독교 인사들과 외부단체의 행사를 유치하거나, 장소협조를 해 열린 교회로서의 위
 상을 드높였다. 신임군종목사 수련회, 장로교 신학회 논문 발표회, 육사 세례식 등을 주관하고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30학기 째 개최했다. 제 38회 국가조찬기도회와 국회조찬
 기도회가 주관하는 국가조찬 기도회에 앞서 전야제 성격
 의 음악회가 외국 귀빈들과 외국대사들이 초청된 가운데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음악회는 기독교 위성채널인 CTS
 TV에서 전국에 방송됐다.

5월 31일 지방선거 때는 투표를 위해 교회 1층을 투표
 장소로 제공했고, CBS시청자 대회에서는 이종윤 목사가
 설교하고 우리교회 연합 찬양대와 아텐 관현악단, 그레이
 스헌드렐 라이어가 함께 참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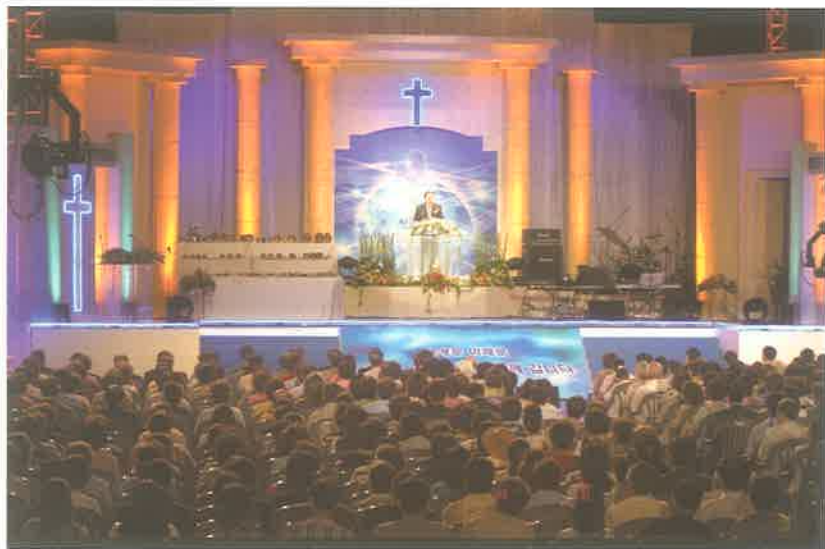
또 서울 세계도서관 정보대회가 8월 20일부터 24일까
 지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참석자 2000여 명 중 상당수를
 차지한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 체현을 위해 우리교회를
 방문하고 특별 예배를 드림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회장 등, 인권 및 북한선교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공연도 있었다.

목사님이 북한 주민 구원을 위한 세계 기도일을 정
 구원을 위한 세계 기도일로 공식 선포되는 등 한 해
 를 위한 영어교실을 열어 통일 후를 대비하는 지도

한 해 동안 갖
 '소망호텔
 따라지 지
 320평 대지
 김치 동문의 날
 김치 동문의 날
 캄보디아
 동북아
 지도자들 초
 풍성히 열



만나보았습니다

이영조 집사, 올해의 음악가 상 수상

우리교회 음악 감독 이영조 집사님은 한국음악비평가 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음악가 상을 수상하여 12월 28일 충무아트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 집사님은 채동선 작곡상(1987), 한국예술가협회 선정 최우수 예술인상(2002), 한국작곡가협회가 선정한 한국작곡대상(2003)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의 음악가 상은 매년 말 우리나라의 음악비평가들이 모여 전공과 관계없이 그해에 음악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음악인 한 명을 선정하여 주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다. 이영조 집사님은 그간 오페라 <처용> <황진이> <목화> <순탁호텔> 등 일련의 대형 작품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토속적 요소를 세계 음악언어화 한 부분이 인정되어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편집자 주)

이같이 귀한 상을 받고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든 음악은 그 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을 받는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감사하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큼니다. 그러

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아닌 혹독한 눈의 비평가들이 주는 상을 수상하였다는 점에서 자긍심도 갖습니다.

30, 40대의 10여 년 간을 외국에서 보내고, 이제 60을 훌쩍 넘어 뒤돌아보니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외국에서 보내면서 나의 조국 한국을 돌아보게 되었고, 토속음악에 머물지 않은 예술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에 대한 생각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음악 소재의 많은 부분이 우리 민속을 주제로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며, 국제 규격화된 서양의 악기와 연주 형태로 현대 감각에 맞게 표현 되는 우리음악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과거와 다른 화음체계에 의한 새로운 색깔의 음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회음악에 있어서도 성가곡, 합창곡, 칸타타 등 150여곡이 넘는 곡을 작곡하고 출판하여 많은 교회 찬양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새해부터 우리교회 음악감독직을 맡게 된 것도 저에게는 의미가 큼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우선하여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경배와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어떤 곡을 가지고 어떻게 드러야 하는지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가장 경건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와 찬양곡 중에는 예배에 적합하지 못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음악지식을 나의 신앙과 연계하는 것은 성도인 저의 의무이자 자연스럽고 바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음악지식을 나의 신앙과 연계하는 것은 성도인 저의 의무이자 자연스럽고 바른 모습”

교회음악이 세속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려를 넘어서 현실이 되어 이미 여러 교회안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교회음악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일에 앞장서야 하며, 우리나라에 문화의 기독교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심부름꾼이 되려고 합니다. 이 때,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리라 믿으면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백영의 권사(11교구)

1927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난 저는 새해로 만 80세가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 만 80년을 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 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던 저희 가정은 손자들까지 5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으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6.25에 피난 나와 서울에서 처음 섬긴 교회가 충현교회였고, 1991년 본의 아니게 교회를 떠나지게 된 이종윤 목사님을 전인화 권사와 이옥녀 권사와 더불어 무작정 따라 나와, 당시 미국에 가 계신 목사님을 청빙하여 서울교회를 세우기까지 지금와서 돌아보니 참으로 꿈같은 세월입니다. 믿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알겠지만 평생 섬기던 교회를 등지고 나오는 그 심정은 뼈를 깎는 아픔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러나 그때 교회를 세우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영광,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정기검진차 병원에 갔다가 체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지금은 회복중에 있습니다. 처음 암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들었을 때 참으로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자녀들은 저마다 최고의 의사와 권위자를 찾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다니던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훈은 시편 23편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수술 전 날에도 아이와 같은 단잠을 주시더니 수술 침상에서도 내내 나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회복하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의사도 놀라고, 수

술 환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가래도 한꺼번에 주먹만한 것이 나와 그 후로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처럼 대수술을 받고 보니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사는 동안 병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더욱 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가보니 아픈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수술 전 날에도 아이와 같은 단잠을 주시더니 수술 침상에서도 내내 나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종윤 목사님께서 목회현장에 계시는 동안은 아직 우리 권사들의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

려고 합니다. 지금 혹사라도 병중에 계시거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모두의 목자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 힘을 얻으시며 한 해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예배

2007년 1월 1일 0시 본당에서

2006년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2007년을 맞이하는 첫 시간을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2007년 1월 1일 0시에 본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된다.

11시30분에 모든 성도들이 회개기도와 새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소동이 되었다가 0시 정각에 강대상 촛대에 불이 켜지면서 위임목사님의 인도로 시작된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11시 30분 소동이 되기 전에 본당에 입장을 완

료하여야 한다.

또한 금년에도 송구영신예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해외에 나가있는 가족들이 시청함으로써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교회 홈페이지 www.seoulchurch.or.kr 메인 화면 송구영신예배 생중계).

모든 성도는 회개와 감사로 준비하는 송구영신예배가 되도록 바라고 기도한다.

송년 음악의 밤

12월31일(주일) - 밤 10시 본당

우리교회 찬양위원회(위원장 김광신 장로)는 2006년 마지막을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하여 송년 음악의 밤을 준비한다.

송년 음악의 밤은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되기 전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본당에서 열리며 초등부 찬양대의 찬양을 시작으로 합시바 증창단, 우리교회 지휘자로 수고하시는 성악가들의 독창(박승혁, 류충기,

고성진 집사), 스테판 증창단, 파이프오르간 연주, 아덴관현악단 연주, 그레이스한드벨 콰이어 연주, 기타독주 등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모든 성도들이 이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쁨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장식하고자 한다.

장로·권사 은퇴 및 장로안식년, 후반기 전도상 시상, 주간성경공부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06년의 마지막 찬양예배시간은 다양한 행사로 이어진다. 먼저 평생을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시다가 총회 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을 은퇴 장로 및 은퇴 권사로 모시는 한편, 2007년 일년 간 안식년을 맞이하는 장로님들을 위하여 감사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2006년 후반기 6개월 동안 생명 구원의 참병으로 전도에 힘쓴 성도들을 시상하는 전도상 시상과 매주일 주보와 함께 배포되는 주간성경공부 수료 시간을 갖는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은 박두영 장로, 권사님들은 이영자, 최숙자 권사 2분이며, 안식년을 맞는 장로님들은 홍성주, 이복규, 이관규, 김세재, 임상현 장로 5분이다.

-2006 후반기 전도상 수상자-

금년에 등록된 가족은 총 1,433명이며, 그 중 본인 등록이 374명, 전도등록이 397명, 70인 전도대 등록이 662명이었다. 그 중 200명 이상 전도자로서는 박이선 집사가 206명을 전도하였으며, 100명 이상 전도자로서는 임명숙 집사가 118명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명 이상 전도한 성도들은 총 214명이며, 12명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17명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 I 상패 수여자 (12명)
 - 1. 200명 이상 - 박이선 2 100명 이상 - 임명숙
 - 3. 10명 이상 (10명) : 박옥, 서순희, 이미송, 박경희, 박정일, 윤현미, 이정희, 최춘숙, 서희숙, 원용규
- II 상장 수여자 - 5명 이상 (17명)
 - 김은순, 이현주, 남현주, 김 옥, 김동진, 김미성, 최성희, 박영숙, 최봉희, 노정숙, 김혜중, 고금란, 유경희, 박화실, 김정순, 박순자, 진돈

-주간성경공부 시상자 명단-

- 중등부-안준홍, 전숙향, 주동재,
 - 1교구: 국산옥, 김광룡, 김명숙, 서경애, 손영호, 송경옥, 이소명, 임송자, 임철자, 정복순, 최규초, 한선현, 홍순복, 홍일성
 - 2교구: 손현순, 오종래, 정봉규, 최남수, 최형열, 홍승자, 유근종
 - 3교구: 고정숙, 박분옥, 배재송, 이경구, 이순래, 이재봉, 이혜순, 임분도, 임인숙, 전정숙, 정병무,
 - 4교구: 김복녀, 김혜경, 박우옥, 이승민, 이승희
 - 5교구: 김정희, 박은영, 백수남, 이광열, 이윤영, 임선철, 최근자, 최소희, 최학인,
 - 6교구: 강영순, 김경옥, 김희진, 서영세, 서정에, 한금희
 - 7교구: 김숙행, 김태기, 윤운식, 정연택, 정정희, 함은희
 - 8교구: 강희자, 임윤자
 - 9교구: 김진숙, 송옥혜, 유신, 조상희, 한옥순
 - 10교구: 김경희, 안분선, 윤찬오, 이점숙
 - 11교구: 김양숙, 김혜수, 이정희, 이두원, 이민화, 이승준, 이옥희, 이흥기, 장정화, 조정옥
 - 12교구: 김형택, 남정열, 양숙란, 윤정식, 이동수, 정희순
 - 13교구: 권은주, 김영식, 김은태, 손성실, 엄정순, 오정숙, 이상은, 주화인, 함연호, 방효철
 - 14교구: 배옥선, 유기찬, 이명순, 정미연, 정찬주, 최낙주, 최태옥

교회학교 졸업·수료식

우리교회 교육1국(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와 교육2국(중등부, 고등부)에 속한 학생들의 졸업 및 수료식이 오늘 1부예배 후 각 교회학교 별로 열린다. 그리고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등반하는 학생들과 졸업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도록 기도한다.

2007년 섬김위원 요람 교우사업체 추가등록 사진 누락자 촬영 마감

성도간의 원활한 친목과 봉사를 위하여 2007년 섬김위원 요람에 성도들의 사업체를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한다. 등록을 원하는 성도들은 다음 주일(7일)까지 접수양식에 의거 703호 멀티미디어부실로 접수해 주기 바란다. 접수양식은 교구간사실(510호)에 비치되어 있고 접수양식에 의거 접수된 사업체만 2007년 섬김위원 요람에 등록된다. 섬김위원 요람은 1월 둘째주에 출간될 예정이다. 또한 2007년 섬김위원 요람 사진누락자 사진촬영을 오늘로 마감하니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촬영장소 : 703호 멀티미디어실)

3사단 삼성교회 신병 73%를 기독교인으로 변화시키다

총 입대인원 5,471명 중 2,928명이 세례 받아

우리교회가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 위한 비전2020 운동의 일환으로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육군 제3사단 삼성교회에서 2006년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과 성도들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낭보를 전해왔다.

삼성교회(담임 장승권 목사)는 2006년 한 해 동안 신병교육대에서 총 17회의 진중세례식을 거행하였으며 올해 입대한 5,471명의 신병 가운데 2,928명이 세례를 받아 53.5%의 수세율을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는 또한 신병 중 이미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신자를 20%로 추정할 때 3사단으로 입대한 신병의 73% 이상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다.

3사단 삼성교회는 내년에도 총 16회의 진중세례식을 계획하고, 입대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민족의 75%가 복음화되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자.

금요기도회 초대 글

로템나무 아래

정수길 목사 (금요일아부 지도)

그동안 많은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이 헌신적으로 섬겨오시던 금요심야기도회가 2007년 새해부터 <금요일아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금요심야기도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품고 심야기도회를 사모하시는

정식 부장 장로님, 언제나 깊은 영성을 담아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시는 손영호 부감 집사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반주를 해주신 흥해란 선생님, 한결같이 심야기도회의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의 어머니로서 든든한 힘을 실어주시는 홍순복 사모님, 그리고 자신과 가족은 물론 주의 몸 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이 귀한 분들과 더불어 금요심야기도회를 섬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사람 중에 한 분이 학원을 시작하면서 이런 각오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학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원을 경영하는 동안 처음의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런 각오를 다져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

이제 바라기는, 금요심야기도회를 통해 우리 모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

에 내려놓고 나 자신과 이웃,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랑받는 서울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서울교회 금요심야기도회의 자리가 일찍이 엘리야가 새 힘을 얻었던 곳, "로템나무 아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가족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금요심야기도회 주력부대

월/일	주력부대
1/5	1교구, 당회원
1/12	2교구
1/19	3교구
1/26	4교구

2007년도 100교회 후원현황

원용규박이선 / 원용범김영희 / 유승순 / 윤봉준, 김명화 / 윤희권, 김유경 / 은기장, 김경숙 / 이호 / 이강인, 허숙 / 이강진, 송미령 / 이관규, 이순영 / 이남성, 최영란 / 이동만, 이은자 / 이병현, 채경희 / 이복규, 한명순 / 이승준 / 이승희, 이종울 / 이영기, 이영숙 / 이우진, 김일순 / 이인보 / 이재순 / 이종균 / 이찬호, 최정순 / 이희민 / 임광식, 노영숙 / 임광호, 김정미 / 임낙식 / 임상현, 서희숙 / 임종식, 신선주 / 장명순 / 장인원, 박경옥 / 정동학, 김복순 / 정수환 / 조명준 / 조미진 / 주동재, 김동진 / 차도훈, 남태영 / 최학인 / 하인선, 남태순 / 한승집, 최미아 / 홍순복 / 홍창배, 권희순

(다음주 계속)

예결산 특별제직회

오늘 찬양예배 후

2006년도 결산과 새해예산을 심의하는 특별제직회가 오늘(31일) 찬양예배 후 2층 본당에서 있다.

동정

- 이종은 목사는 3일(수) 서울강남노회 주최 신년레크리에이션 설교를 한다.
- 이사 : 전인화 권사 송파구 가락본동 99-6 동부원빌 오피스텔 809호 T. 403-3085
오치열 집사, 하숙집사(11교구) 송파구 송파동 170번지 SK아파트 1204호 T. 414-8490
- 특남: 3교구 강운영 · 윤영선 성도가정
- 이치혜 성도(2교구, 이준호 집사, 이은희 집사의 장녀), 행정고시 합격
- 주간식당봉사: 모세선교회(12월31일) 도르카전도회(1월7일)
- 금주의 식사 : 황정옥 집사 주경자 권사 가정 김태삼 집사 조숙자 집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20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다시 일어나도록

2007년 1월 첫 3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여

2007년은 1907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평양대부흥운동의 중심은 바로 1907년 1월, 길선주 목사를 비롯한 장대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작한 새벽기도회와 부흥사경회에 있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2007년 새아침에 우리 총회는 그때 그 성령의 물결을 기대하면서 총회 산하

7,300여 교회가 모두 동참하여 회개하고 부흥을 꿈꾸는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바, 우리 교회도 이에 동참하게 된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힘써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송구영신예배에 이어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회는 매일 새벽 5시 30분 부터 단, 청지기 수련회는 (1월 8일~13일) 기간동안은 새벽 5시부터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송구영신(送舊迎新) 목은 해를 감사로 보내고 새해를 소망 중에 맞는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2.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 참여하여 부흥의 새역사가 창조되기를
3. 국가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는 새해가 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